

## 전통혼례 신청시 혼주 준비사항

- 전통의례관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 의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 서식에 따라 10일전까지 전통의례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용료 20만원)
- 전통혼례 진행순서
  - ① 친영례(親迎禮)로 시작된다.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입장하는 순서다.
  - ② 전안례(奠雁禮: 신랑이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예(백년해로 서약의 징표)
    - ※ 원래 순서에는 없지만, 신부가 가마를 타고 입장하는 부분 삽입
  - ③ 교배례(交拜禮) : 신랑 신부가 초례청에서 처음으로 상견을 하는 의식(백년해로를 서약)
  - ④ 합근례 : 신랑 신부가 표주박의 각각 반쪽으로 술을 마신다(부부로서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
    - ※ 하객에게 큰절
- 전통혼례 신청자(혼주) 준비사항

연번	구분	혼주측(신청자) 준비사항	박물관 지원사항
1	대례상 음식	· 밤, 대추, 팥, 쌀, 배3개, 사과3개 · 두부2모, 닭2마리(암닭1, 수닭1) · 술(정종 1명), 초 2개	· 대례상 용기 및 상차리기
2	접수처 물품	· 싸인펜 4개, 흰봉투 준비 · 방명록 2개(신랑, 신부)	· 접수처 탁자 및 의자 · 혼주 및 신랑(신부)이름 · 신랑측, 신부측 명패 놓기
3	대례복	· 신랑, 신부 한복	· 신랑, 신부 대례복 입히기
4	수모 등 가마꾼	· 수모 2명(신부 절 할 때) · 가마꾼 4명(입장 때), 기력아범 1명(청사, 초롱아이 2명) - 친인척 가운데 사전 섭외	· 수모, 가마꾼, 기력아범의 옷 · 옷 입히기
5	폐백실 준비	· 폐백 음식 등 준비 및 진행	· 폐백상 용기 등
6	기타 사항	· 집례자 사전 섭외, 축하객 식사 준비 (부페 등 사전 예약)	

※ 기타 참고사항

- 축하 공연인 사물놀이는 박물관에서 제공해주지는 않으니, 별도로 신청자에게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 전통 혼례 진행 순서 】

상주시 전통의례관에서 시행된 전통혼례의 모습입니다. 전통혼례는 지역에 따라 대례상차림과 진행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상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전통혼례 가운데 하나의 사례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행 친영례 (行 親迎禮)



### ♡ 행 친영례 (行 親迎禮)

신랑이 가마(말)를 타고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오늘날 신랑 입장에 해당하는 절차로, 청사초롱을 앞세우고 뒤에 기력아범(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든 사람)이 따른다.

※ 전통혼례는 두 집안 간 혼인의사를 타진하는 의혼, 약혼의 단계인 납채, 혼인 날짜를 정하는 납기,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는 대례, 혼례를 치르고 수일(보통 3일 정도)이 지난 후, 신부가 시택으로 들어가는 우귀례, 등 6가지로 나누어 육례라 한다.

◆ 행 전안례 (行 奠雁禮)



♡ 행 전안례 (行 奠雁禮)

신랑이 신부 댁에 기러기를 드리는 순서로, 신랑은 전안침으로 들어가 기러기 머리가 서향되게 하여 전안상에 놓으면 장모는 기러기를 치마폭에 싸서 방에 모셔 놓는다.

※ 기러기는 한번 배필을 정하면 짝을 잃어도 홀로 지내면서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고, 하늘을 날아 갈 때도 앞뒤의 질서를 지켜 순서를 바꾸지 않으며, 서로 화답하는 예의가 있고, 또한 기러기는 왔다는 흔적을 분명히 남기는 속성이 있어 이를 본받아 훌륭한 삶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세 가지 뜻을 가진 영물로 백년가약의 징표로 예를 올리는 것임

◆ 행 교배례 (行 交拜禮)



♡ 행 교배례 (行 交拜禮)

신랑 신부가 초례청에서 처음으로 만나 상견하고 예로서 서로 절을 하는데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혼례의 절차이다.

① 수모인 부출 취 초례청 (隧母人 婦出 就 醮禮廳)

신부입장에 해당하는 순서로 여 집사가 신부를 모시고 나와 가마를 타고 혼례장으로 들어오면 먼저 입장한 신랑은 동쪽에 서있고 신부는 서쪽에 자리를 잡고 선다.

② 양가주부 예초례청 상읍 점촉 (兩家主婦 詣醮禮廳 相揖 點燭)

양가 주부가 혼례상의 초에 불을 붙이는 절차로 신랑측 어머니는 붉은 초에 신부측 어머니는 푸른 초에 점촉 하는데 이는 남자는 자색 여자는 홍색을 표시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불을 밝혀주는 예임



### ③ 각 시자 인에 관세위 (各侍者 引詣 盥洗位)

관세위 (盥洗位)는 신랑 신부가 혼례에 임하여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위해 맑은 물에 손을 씻는 의식이다.

※ 서관우남 (婿盥于南) 부관우북 (婦盥于北) 신랑은 남쪽으로 보고 신부는 북쪽으로 보고 손을 씻는 시늉을 한다.

### ④ 부선재배 서답일배, 부우선재배 서답일배

(婦先再拜 婿答一拜, 婦又先再拜 婿答一拜)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하고, 신랑이 한번 답배를 하고, 다시 신부가 두 번 절하고, 신랑이 한번 절을 한다. ※ 신랑이 한 번씩 두 번, 신부가 두 번씩 네 번 절을 하는 것은 남존여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남녀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이치에 의하여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양의 기본인 한번,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음의 기본인 두 번 절하는 뜻이 있다.

◆ 행 합근례 (行 合樽禮)



♡ 행 합근례 (行 合樽禮)

신랑 신부가 한 표주박을 들로 나눈 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의례로 반으로 쪼개진 표주박은 그 짝이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으며, 그 둘이 합쳐짐으로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는 일심동체의 뜻을 담고 있다. 신랑 신부가 세 번 술을 나누어 마시는데, 그 첫째 잔은 지신(地神)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고시례하는 잔이며, 둘째 잔과 셋째 잔은 부부의 화합을 기원하는 잔이다.

⑤ 서 음 부 진 음 (壻 揖 婦 盡 飲)

신랑의 술잔은 초례상 위 청실홍실 밑으로 신부에게 건네주고, 신부의 술잔은 초례상 밑으로 해서 신랑에게 건네주며, 서로 음을 한 후 표주박잔의 술을 마신다.

♡ 행 성혼례 (行 成婚禮) 예필(禮畢) 철상(撤床)

혼례를 마치는 마지막 단계로 양가 혼주와 신랑, 신부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순서

## ◆ 폐백(幣帛)



### ♡ 폐백(幣帛)

폐백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전통 혼례의 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나서 1~3일이 지난 후 시댁으로 가서 친정어머니가 싸 준 대추, 밤, 마른안주 등을 차려 놓고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예식이다. 오늘날은 편의상 초례청에서 혼례를 마치고, 상례당(의례관 본관) 우측에 마련된 폐백실에서 신랑 신부가 시댁식구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